

국의 장기 직무 훈련보고서 요약서

성명	윤인혁	직급	행정사무관
훈련국	캐나다	훈련기간	2022. 8. 31. - 2024. 2. 28.
훈련기관	브리티시 컬럼비아 공동 임업 협회 (British Columbia Community Forest Association)	보고서 매수	110 매
훈련과제	캐나다의 로컬 거버넌스와 연계한 산림교육 정책 및 사례 연구		
보고서 제목	캐나다의 로컬 거버넌스와 연계한 산림교육 정책 및 사례 연구		
내용 요약	<p>【연구 배경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산림은 시대적 변화와 정책 변화에 따라 가치와 역할이 변화함. 황폐화로 인해 보호와 보존의 대상이었던 산림이 녹화 성공 이후 이용과 활용의 대상으로서 그 역할이 전환되었고, 이에 치유, 휴양, 교육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기 시작함 ○ 특히, 최근에는 산림을 통한 교육의 긍정적 효과와 환경문제, 기후 변화 위기와 같은 국제적 이슈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산림교육의 수요가 증가함 ○ 그와 더불어 기존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자유학기제, 생태전환 교육 등 다양한 현장 경험과 체험에 기반한 교육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산림교육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산림교육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 중심의 산림교육 로컬 거버넌스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풍부한 산림 자원을 활용한 지방 정부와 지역 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로컬 거버넌스 주도의 산림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캐나다의 사 		

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내 산림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함

【한국과 캐나다의 산림교육 정책 비교】

- 국내에서 사용되는 산림교육의 의미는 국외와 비교해 볼 때 다소 협소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국내외 모두 산림교육을 통해 자연 환경이나 자연 자원,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산림 생태계와의 상호 작용을 학습하며,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의 인식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 시설 조성 등과 같은 산림교육 정책의 모든 부문을 중앙정부에 적극 개입하고 주도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 주정부는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별성임
- 한국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에 있어 국가 자격제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급자 위주의 자격제도, 교육훈련과 직업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반면에 캐나다는 지역 사회가 주도하는 캐나다는 산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민간에 자유롭게 맡기고 그 판단은 교육 수요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장소 마련에 있어서도 지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 산림의 특성이 반영된 교육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특히, 숲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FNS의 강화, 도심 인근 장소의 활용과 공급 주체의 다변화는 캐나다 숲교육 확산에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됨.
- 이러한 지역 주도의 노력은 교육의 다양성과 품질 향

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산림 자원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어내는데 일조하고 있음

【산림교육과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수준】

- 캐나다의 산림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에 대한 관심과 인식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이 목표에 부합하고 교육이 의도하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효과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산림교육 실행 주체에 관한 설문에서는 산림교육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비영리단체, 학교 등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산림교육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높고 특히, 어린이와 가족들이 지역의 자연과 연결되어 보호에 기여하며, 지역 사회의 건강에 이바지한다는 관점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교육 장소, 시설 등과 같은 산림교육 인프라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 결과는 산림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육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함.
- 설문을 통해 정부와 민간 부문, 그리고 지역 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산림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국내외 산림교육 운영 사례 분석】

- 캐나다의 로컬 거버넌스 중심의 산림교육 운영 사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음. 민간, 대학교, 지역 기업 등이 주도적으로 산림교육에 참여하고 기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먼저, 민간 주도로 산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캐나다 어린이와 자연 연합(Child and Nature Alliance of

Canada, CNAC)의 숲과 자연학교(FNS) 프로그램과 PLT Canada의 녹색 일자리 연계 산림교육, 로손 재단 및 TD 은행 그룹의 산림교육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민간 주도의 산림교육 공간 조성 프로젝트 추진 등 지역의 민간 비영리 기관, 지역 기업 등에 의한 산림교육 추진이 활발함

- o 지역 정부와 지역 교육 단체와의 협업 사례도 있었음. 주정부가 야외교육센터를 마련하고 민간 산림교육기관이 교육을 진행하는 협력을 통한 사례가 있었음. 또한 린 캐니언 공원과 스탠리 지역 공원의 인프라를 산림교육 장소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민간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공동 운영 또는 관리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 o 지역 대학 주도의 산림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있음. UBC의 경우 대학 연습림을 산림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에 제공하고 있음. 그리고 Co-op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교와 지역 기반의 기업들이 연계된 임업 분야 산학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산림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협동 교육의 대표적인 사례임
- o 마지막으로 산림 관리 기관과 목재 소비 업체 등에 의해 산림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BC주의 경우 BC주 지역 산림 네트워크인 공동 임업 협회(BCCFA)는 지역 산림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산림교육이 지역 중심의 산림 관리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과 함께 각 지역 산림에서의 산림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그리고 나무 소비 업체인 목재 기업에서는 보조금 지원, 산림 환경 교육 및 산림 일자리 교육 참여, 교육 시설 등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지원 등 지역 사회에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 또한, 그의 운영을 조정하기 위해 지역 사회 협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음

- 캐나다의 산림교육 운영 사례를 통해 민간, 정부, 대학, 산림 업체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폭넓고 다양한 관점의 산림교육 기회의 제공, 지역에 특화된 현장 경험의 교육 제공, 로컬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 산림교육의 지속성 보장과 같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음

【로컬 거버넌스 중심의 산림교육 활성화 방안】

- 캐나다의 사례와 같이 산림교육의 추진에 있어 지역 사회와의 협력적 접근 방식은 필수적임. 이를 위해 다양한 협의기구를 만들고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지역별 교육 자문위원회나 전문가 그룹을 마련하고 현재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산림교육 자료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의 마련이 필요함
- 현재 한국의 산림교육 예산은 대부분 국공립 시설에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캐나다 인식 조사와 운영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산림교육을 위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인프라 지원임. 이에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 배치와 같은 인적 서비스는 민간 기관이나 지역의 전문 교육 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함. 또한, 예산의 다각화를 위해 캐나다의 환경 문해력 기금 등과 같이 별도 기금을 조성하여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함
-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산림교육 추진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함.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강조를 통해 시장에서

	<p>긍정적인 이미지를 얻게 하여 소비자들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역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도 고려가 필요함. ESG와 연계한 지역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기부금, 시설 조성, 공동 교육 사업 추진 등과 같은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주도의 산림교육을 지역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정부, 지역 기업, 지역 교육 기관 등 지역 사회 중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하는 로컬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의 분석을 통한 산림교육의 공통된 가치와 요구사항을 도출하여야 함.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의 강점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산림 교육 로컬 거버넌스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금, 시설, 전문 지식 등에 대한 다각화를 통한 곳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위험을 분산하여 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함. 또한, 지속적인 평가와 피드백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필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 것은 산림교육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는 것이었음. 현재의 산림교육이 산림의 자연 환경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제는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산림의 순환 경영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 또한, 현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과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기조에 발 맞추어 지방 중심으로의 산림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노력들은 산림교육을 통한 산림 자원의 보전과 활용, 그리고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